

제2장

2016 군정성과 및 2017 군정 추진계획

제 1 절 2016 군정성과

제 2 절 2017 군정 추진계획

제1절 2016 군정성과

1. 총 괄

민선 제6기 중반기를 맞아 ‘인구 30만, 예산 1조시대 울주’, 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비전을 ‘새로운 도약, 행복누리 울주’로 정하고 문화관광과 경제, 복지, 안전 등 모든 분야에 혼신의 힘을 다한 해였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세계 속의 문화 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제1회 울주세계 산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를 향해 더 큰 걸음을 내디뎠으며, 5만 4천여 명의 관객이 찾아 세계 3대 영화제로의 도약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울산용기축제가 2016년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고, 포켓몬GO 관련 서비스를 통해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4,3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국 최초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울주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과 아동, 청소년,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울주국민체육센터 개관 등 각종 시설을 건립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 속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최초 ‘착한 군’(2015년) 선정에 이은 ‘천사 군’(2016년) 지정으로 복지도시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사람중심 안전도시를 위해 신청사 건립과 복합행정타운 조성은 물론,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주민 편의를 위한 온양읍과 언양읍, 삼남면 신청사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기반 확충, 언양 중심시가지 거리 조성, 벚꽃길 경관 조성 등의 도시·가로경관 조성,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등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 기반 구축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국 최고의 연어 관련 시설인 태화강 생태관을 개관하여 생태학습과 여가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였다.

농·축산·어업 분야에서는 녹색농촌, 선진농업 실현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농업인 소득안정 및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및 판로를 다각화하였다. 또한 축산업 사육기반 육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 어업 생산기반 육성 및 수산재해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꿈을 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언양읍성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 관내에 모두 46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울주 독서한마당 개최 및 한 책 읽기 운동,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 읽는 울주 실현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울주 군민특강, 맞춤형 평생학습사업 등 누구나 꿈을 열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아프리카 케냐에 희망티셔츠 12만7천벌을 기증하는 등 국경을 초월한 이웃사랑으로 선진학습도시로의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2. 역점시책별 주요 성과

가. 세계 속의 문화관광도시

주민생활 속에서 함께 공감하는 문화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관광여건 조성
과 국제적 관광도시로의 진입에 주력한 한해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산악영화제인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5만 4천여 명의 관
객이 찾아 세계 3대 산악영화제로의 도약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영남알프스 복합웰
컴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알프스시네마 및 국제클라이밍센터 활성화 등 영남알프스 일
대가 국제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진하해수욕장 일원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울주진하 PWA 세계윈드서핑
대회 및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전국 청소년 해양스포츠 제전, 울주군수배 전국
윈드서핑 대회 개최 등 국내·외 각종 해양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해양레
포츠 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거리공연 운영, 울주 오디세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체육행사 지원을 통
해 생활 속 공감 문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울산옹기축제가 2016 문화관광 유망축제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와 포켓몬GO 행정서비스 지원을 통해 28만여 명이 방문하
는 등 울주를 전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나.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와 해외 판로개척 마케팅 전략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과 군민의 상생경제 기반 마련에 주력하였다.

1조 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3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에너지융합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인허가 절차 간소

화, 각종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 73개의 특례를 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일자리 안내지원센터 운영으로 925명이 취업하는 값진 성과를 얻었으며, 공공 일자리,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463개 창출, 투자유치 보조를 통한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로 15개 기업에 1,390억 원 투자, 400명의 신규고용이 이뤄졌다.

이 외에도 해외 판로개척 마케팅 전략사업에 관내 69개사가 참가해 2,425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달성하고 중소기업지원 ‘기술닥터사업’으로 67개 업체의 매출이 135억 원 증가 하였으며, 중소기업 272개 업체, 소상공인 977명에게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다.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

다함께 행복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및 생활 속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권역별 복지박람회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자원·사례 발굴 및 연계로 9,552건의 서비스 연계, 사랑의 집수리 25세대, 125건의 나눔 푸드를 기탁하였으며, 착한가게 556개 업소와 천사계좌 33,537구좌 모금으로 ‘착한 군’에 이은 ‘천사 군’으로 선정되었다.

노인복지를 위해 42개소의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실시하고 만 65세 이상의 청춘 일자리 사업으로 1,89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 8개 사업에 4,180백만 원 지원 및 장애인 11,140명에게 장애수당 및 연금지원,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방문교육 등 7개 사업을 5,538회, 친정나들이 사업 등 5개 사업을 112회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출산율 제고와 아동복지를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펼쳤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아동양육시설지원 등의 아동복지 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인구 30만 울주 건설의 원동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라. 사람중심 안전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신청사 및 읍면 청사 건립은 물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가로 경관 정비 및 도시 숲 조성, 각종 재난재해 피해의 사전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인구 30만 미래 울주 건설의 초석이 될 신청사 건립과 복합행정타운 조성은 물론,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주민 편의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온양읍과 언양읍, 삼남면 신청사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언양 중심시가지거리도 새롭게 단장했으며, 등억 야영장 및 작천정 다목적광장 조성, 작천정 벚꽃길 경관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였고 태화강생태관을 개관하여 지역주민의 생태학습과 여가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해 CCTV시스템 구축과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범죄 검거율(84.4%)이 향상되었고, 69개소의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 범서 천상~장검마을 연결도로 개설 등 30여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및 학교길 교통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위해 54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 및 61개소의 노후 승강장을 교체 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복 배내 공영주차장 준공 및 언양·대운산·온덕 1,2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다.

마. 녹색농촌 선진농업

미래 생명산업으로서의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고소득 사업을 발굴하고 친환경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명품한우 육성, 어업 생산기반 육성사업 추진 등의 정책을 펼쳤다.

고품질 쌀 가공을 위한 고품질 쌀 공동 육묘장 설치 및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직접 직불제 사업,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대체작목 육성 등으로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판로 다각화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품 소비촉진을 위해 청량과 울산원에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였다.

축산분야에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명품한우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봉계경관단지 조성 및 언양 한우불고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농가 수익증대 및 특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과 농장·철새도래지 소독 등을 통하여 우리군의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였다.

수산분야에서는 미역 가공업체의 설비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 우리군 수산물 특산품인 미역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업생산기반을 육성하여 어업 생산성 향상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바. 꿈을 여는 평생학습도시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교육인 만큼 글로벌 인재 육성과 100세 시대 환경에 맞는 평생학습 문화 및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 확산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울주 세계시민교육, 울주 지속가능발전 평생학습 대전 등 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 RCE를 확산하고 울주 RCE 지구촌 희망 나눔 캠페인을 통해 아프

리카 케냐에 희망티셔츠 12만7천벌을 기증하는 등 국경을 초월한 이웃사랑으로 배움과 나눔의 선진학습도시로서의 대외이미지를 향상시켰다. 또한 온가족 울주 한바퀴, 울주 3040 부모 공감 콘서트, 울주 아카데미, 울주 오피니언리더 교육, 울주 군민특강을 운영하여 큰 호응과 함께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교육 분야에서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운영 및 초등학생 4~6학년 대상으로 영어 스피치 대회 실시, 중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과학영재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체험활동 및 실험·실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성교육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현하였다. 이 외에도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정보화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명문고 육성 및 신설인문계고 지원, 무상급식비 및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책 읽는 소리가 아름다운 울주’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모여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독서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북 콘서트, 책탑 및 책 놀이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언양읍성 작은도서관 개관 등 관내에 모두 46개의 도서관을 운영하여 생활 속에 스미는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제2절 2017 군정 추진계획

1. 추진방향

민선 6대 3년 차를 맞아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자세로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017년 비전 역시 ‘새로운 도약!! 행복누리 울주’로 정하고 6대 역점시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의 군정목표 아래 생동감 넘치는 매력도시, 쾌적한 친환경 성장도시, 즐겁고 희망찬 문화도시의 3대 군정방침에 따라 2017년 비전 실현을 위한 6대 역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6대 역점시책

- 첫 째, 신청사 시대, 내일의 시작
- 둘 째,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관광도시
- 셋 째, 기회가 있는 활기찬 경제도시
- 넷 째, 사람 중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
- 다섯째, 나눔·배려,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 여섯째, 미래가 있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2. 역점시책별 추진계획

첫째, 신청사 시대, 내일의 시작

50여 년 청사 더부살이에서 벗어나 우리 군 지역 최초로 청사를 갖게 되는 신청사 이전과 행정타운 조성으로 인구 30만에 대비한 명품 울주 건설의 초석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2018년 ‘울주 정명 천년’을 맞이하여 2017년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해’로 울주 정명 천년 역사책자 발간과 기념비 설치, 기념식을 개최하여 우리 군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하고, 울주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새로운 출발을 기원할 것이다.

또한 12개 읍·면이 함께 만드는 신청사 화합의 동산 조성과 언양읍·온양읍·삼남면 청사 건립으로 미래지향적 행정기반을 조성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둘째,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관광도시

대한민국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영남알프스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로 소통하는 울주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1회 영화제 개최의 저력을 발판으로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3대 산악영화제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내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와 작천정별빛야영장 및 등억야영장 조성, 작천정 다목적 광장 조성 등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번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옹기랜드마크 설치와 옹기마을 6차 산업 프로젝트로 특색 있는 전통옹기마을을 만들고 간절곶 스카이워크 설치와 명품 해안도로 경관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이 외에도 반구대암각화 모형을 제작·설치하여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원형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셋째, 기회가 있는 활기찬 경제도시

기업하기 좋은 투자여건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기업과 군민의 상생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1조 9,94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313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할 것이다.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등 기업 지원과 고용 촉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고객 확보로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에도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넷째, 사람 중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

군민 모두가 걱정 없고 편안한 울주, 주민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태풍 ‘차바’ 피해에 따른 항구복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선제적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난과 재난대응체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학교길 교통시설과 보호구역 개선으로 안전한 학교길 및 보행길 조성, 범죄와 화재, 감염병 등 분야별 안전 인프라도 만들어 안전취약요소 전반을 개선할 것이다.

곡천천 지방하천과 구량천·구영천 친수하천을 정비하여 산책로와 쉼터를 갖춘 주민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덕신·천상·방기공원을 조성하여 도심 내 녹색휴식 공간 확충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대안지하차도 우회도로 개설과 언양반송~삼동 상작마을의 연계도로망을 구축하고 대운산 및 범서 대리·점촌마을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더 많은 힘을 쏟을 것이다.

다섯째, 나눔·배려,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평생교육을 통해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다함께 행복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범서천상도서관 건립, 명품 군민 특강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RCE 확산을 통해 평생교육전문 도시브랜드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천사계좌와 착한가게, 푸드뱅크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서포터즈 사업과 전략적인 복지자원 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과 읍면 복지 허브화, 중부·남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도 탄탄히 구축할 것이다.

여섯째, 미래가 있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국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생명산업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최첨단 ICT융복합 환경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인건비 등 경영비용을 줄여 나가고, ICT 한우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능력 한우암소 생산기반 마련과 품질 경쟁력을 향상하고, 신소득 미래 유망 농업인 곤충산업 활성화 등 미래 식량자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팜투어와 체험 텃밭 조성 등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귀농·귀촌인 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과 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지역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으로 안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질 좋은 농산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